

장시

7월의 숭고한 뜻은 영원불멸하리라

세월은 류수와 같아  
아무런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슬프고 괴로웠던 일도  
망각의 이끼속에 덮어버린다  
하더라

하나 세월의 년륜이 덧새겨질  
수록  
더욱 숭엄한 추억을 부르며  
겨레의 가슴을 뚫게 하는 이야기  
여기 있나니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의 고결한 애국애족의  
생애를 전하며  
오늘도 길이 전해지는 이야기  
잊지 못할 7월의 마지막 밤 이  
아기여

20년세월이 흘렀어도  
금방 어버이수령님 쓰신것처럼  
화강석비둘기에 찬연히 빛나  
누나  
《 김 일 성  
1994. 7. 7. 》

이 글밭이여라  
통일의 밝은 태양을 그려보시며  
그토록 환희에 넘치시어  
수령님 조국통일문건에 남기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이

불덩이같은 아홉글자에 놓뒀는  
숭고한 뜻 깊이 새겨안을수록  
크나큰 격정속에 화폭처럼 펼쳐  
지는  
성스러운 추억이여

바야흐로 박두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홍분과 감격속에  
또 한밤은 깊어가는데  
수령님 일군들을 정원으로 부르  
시켰다

한가정의 어버이를 모신 마음  
으로  
수령님 주위에 둘러앉은 일군들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던  
수령님  
느닷없이 물으시여라

— 래일이 며칠이던가?  
— 7월 7일입니다

— 그래 칠월 칠일이지  
음력으로 칠월 칠일은 칠월  
칠석인데  
이날 밤 은하수에 갈라져서  
애타게 기다리던 견우와 직  
녀가  
일년만에 상봉하게 되오

그러시며 수령님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견우직녀이야기  
다시금 들려주시여라

꽃과 나비처럼 정답던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두고 생리별을 당한  
이야기  
직녀의 열렬한 사랑이 사람들의  
심금을 흔들어놓아

해마다 칠월칠석날이 오면  
까치가 놓아주는 오작교에서  
뜨거운 상봉을 하군 하였다는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  
건만  
7월의 그 밤  
수령님 으로부터 다시 듣는  
이야기  
왜 그러도 가슴을 파고드는지

견우와 직녀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장장 반세기 민족분열의 아픔에  
몸부림치는  
겨레의 불행과 고통  
가슴저리게 새겨보시는 수령님

저 하늘의 까치는 일년에 한번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의 상봉을 이루어준  
다위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통일오작교 놓아주실 결심  
수령님의 심중속에 고백했나니

그 밤  
수령님의 집무실창문에는  
밤새 불빛이 꺼질줄 몰랐어라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력사적인 조국통일문건  
한장 또 한장 번저갈수록  
추억속에 되살아나는 잊지 못할  
화폭들이여

저 멀리 백두광야  
총대로 민족의 기상을 떨치던  
항일의 옛 전장들도  
다시금 마음속으로 밝아보시고

우뚱ભ라는 깊은 밤  
은하수 비껴간 조국하늘 바라  
보며  
우리 수령님 부르시던 《사향가》  
속에

그려보시던것은 만경대만이 아닌  
저멀리 남해의 끝 제주도까지  
였나니

목숨을 바쳐서도  
기어이 이룩해야할 민족해방위업  
그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혁명  
전우들

삼천리강도우에 일떠설  
부강한 조국을 그리며  
만주광야에서 쓰리진 전우들  
그들의 념원 기어이 꽃피우리라

어찌 그들뿐이라  
년대를 이어 지속되는  
민족분열의 아픔속에 잠못들고  
세상을 떠나면서도 통일을 당부  
로 남긴 이들  
이 밤 그들과 이 격정을 함께  
나눌수 있다면

수령님을 뵈옵고  
이제 통일은 완료형이라고  
격정을 터치던 남녘의 목사  
애석하게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의 이름도 다시 불러보시며  
추억도 생각도 많은 밤

세월을 넘어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숙망  
가슴 후련히 풀어주리라  
절세위인의 불라는 통일의지로  
새날을 부르며  
깊어간 7월의 밤이여

한장한장 조국통일문건을 번저  
갈수록  
더욱 사무치게 안겨오는 남녘  
동포들의 모습  
그들을 마주하신틈  
글썽마더에 어려오는 그들의 모습

해방의 감격 차넘치던 서울역에  
술래문 세워놓고  
김일성장군 오시기를 고대했다  
는 서울시민들  
그들과 만나  
반세기동안 쌓여온 회포를 나눌  
감격의 시각도 마음속에 안아  
보시고

수령님 마음속엔  
언제나 남녘동포들 생각  
아, 수령님은 한성토록  
겨레를 떠나 사신적 없으셨  
나니

하늘이 흐리고 비발이 흘날리면  
가물에 시드는 남녘의 대지를  
두고

그러도 속을 태우신 수령님  
재난을 당한 동포들의 소식  
들으실 때면  
침식을 잊으시던 우리 수령님

밤이 되면 어쩐지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남녘인민들의 모습이 떠올라  
도무지 잠을 들수 없다고  
절절히 하시던 그 말씀  
이 땅이 잊지 못하고 겨레가 못  
잊어라

남녘에서 인사들이 찾아올 때면  
그것이 그리도 반가우시어  
중한 일도 뒤로 미루시고 만나  
주신 수령님  
통일은 수령님의 소원이었고  
한생의 기쁨이었거늘

때로는 정원까지 나와 마중해  
주시고  
때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에서

되 돌아 와 만 나 주 신  
어버이수령님  
수백수천의 시내물을 다 겨안는  
드넓은 바다처럼  
남녘에서 해외에서 사는 동포  
모두를  
넓고넓으신 한푼에 안아  
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였거니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뺏침이 없는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묻지 않고  
너그럽이 품어주신 대해같은 그  
사랑

그날은 언제였던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  
뜻깊은 연단에서  
몹소 곁에 불러주신 남녘의  
대기업가  
—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 가  
운배  
리종만선생이 왔으면 주석단  
으로 올라오십시오

이 무슨 일인가  
나를 주석단으로 불러주시다니  
이런 일도 있을수 있는가  
귀를 의심하며 조심히 주석단에  
오른 그  
수령님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  
였으니

리종만선생은  
조선산업건설협의회 회장선생  
이라고  
만장에 소개해주시는 수령님  
터쳐오르는 그 만장의 갈채는  
정녕 그가 받아야 할 갈채였던  
말인가

남조선에서 제노라 하는 자본가  
였지만  
애국애족의 일념을 안고  
민족대단합의 길에 용약 나  
신 그  
그의 지향과 뜻이 소중하시어  
민족앞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신  
수령님

그날은 또 언제였던가  
지난날 반공을 한생의 지론으로  
여겨  
걸어온 인생의 자욱은 수치의  
자욱뿐  
말년에 이르러 진리를 찾았건만  
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던  
해외의 인사를 뜨겁게 안아주신  
것은

우리는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묻물할것  
이라고  
함께 손잡고 통일을 위해서 일해  
나가자고  
수령님 뜨거이 말씀하시 때

아, 해빛같은 그 말씀  
열화와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은  
최많은 그의 인생행로에 무겁게  
드리운  
수치의 그늘을 태우는 불길이었  
던가  
그의 심장에 부어준 뜨거운  
피였던가

언제나 뜻을 같이하고  
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민음을 주고 은정을 베푸신  
수령님  
우렁 우렁 하신 음성으로 불러  
주신  
《동무!》

《동무!》  
그 부름은 그가 한생에  
가장 값높이 받아안은 고귀한  
부름  
력사앞에 통일앞에

그를 땃땃이 내세워주신 크나  
큰 영광

그렇게 인생의 참된 길 찾아주  
시고  
애국의 진리를 가르쳐주시며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신 사람들  
헤어보라 그 얼마나 많고 많은  
것이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인생전환을 한  
최덕신, 최홍희, 윤이상  
그들을 너그럽이 안아주신 품  
그 품으로 유명한 녀류기자도  
명망높은 정치가도 반공일선의  
종교인도

그렇수록 그들을 만날수록  
더더욱 깊어지시던 동포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

해방후 그날로부터 한평생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남녘겨레에 대한 그리움 안고  
사시였으니  
7월의 그날 그립던 그 남녘  
동포들  
기쁨속에 다 만나보신 수령님

그 감동 그 흥분을 안으시고  
남녘겨레에 대한 사랑을 안고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 잠 못드신 7월의 밤이여

하늘의 별도 잠든지 이숙한 밤  
다가을 통일의 날을 그려보시며  
잠 못드시는 수령님  
꺼지지 않는 창가의 밝은 불빛  
이여

80평생 그이 생애의 어느 하루  
인들  
저 불빛 꺼져본적 있었던가  
갈라진 조국의 분열을 두고  
쏟아진 민족의 혈맥을 두고  
수령님 지새우신 많고많은 밤들  
이여

어느해인가 어버이수령님  
항일 투사들과 나누신 뜻깊은  
이야기

오늘도 우리의 가슴  
뜨겁게 울려주거니

우리는 아직 할일을 다 하지  
못했다  
많은 동지들이 조국의 운명 민족  
의 미래를  
우리에게 의탁하고 갔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조국을 통일하지 못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아, 항일혈전만리길  
그 천신만고의 길을 헤쳐가실  
때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  
며칠이고 잠을 푹 자보자 하시  
더니

나라는 해방되었건만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조국  
그 분열의 아픔때문에

언제 한번 편히 잠 못드신  
어버이수령님

통일, 통일이 가슴에 맺히시어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다고  
이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었으니

수령님 마음속엔  
오직 통일, 통일에 대한 생각뿐  
그래서 아니었던가  
조국통일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통일의 진로를 밝혀 불멸의  
대강을 제시하시며  
수령님 지새우신 밤 그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밤도  
그러한 밤이었거니

나라가 분열되어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될 북남최고위급  
회담  
우리 수령님  
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시  
었던가

—수령님,  
수령님 건강이 녀려되어  
회담날자를 8월경으로  
정하였으면 합니다

아 그것은 온 나라 인민의 간절  
한 마음  
그 진정 어이 모르시라만  
일없다고  
7월초도 좋고 아무때도 좋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날자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신 수령님

비오면 그 비를 맞으시며  
눈이 오면 그 눈을 맞으시며  
통일의 길을 걷고걸으신 수령님  
여든을 넘긴 년세에도  
오로지 통일을 위해 불같이 사시  
였으니

잠시나마 휴식하시기를  
일군들은 아뢰고 또 아뢰었건만  
한밤을 지새시며  
조국통일문건을 보아 주신  
수령님  
이대로만 하면 잘될것 같다고  
기쁨을 금치못해하시며  
활달한 친필존함을 새기셨나니  
시간은 7월 7일 새벽 4시 30분  
이였다

온 밤 쌓인 피로는 다 잊으신듯  
신심에 넘쳐 수령님 하시던 말씀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  
하던  
조국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소

그 7월 7일  
너는 그러도 통일의 념원에 넘쳐  
있던  
우리 겨레,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려명을 부르고있었어라

김 영 일  
아, 우리 어이 알수 있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이  
겨레의 심장에 깊이 새겨진  
절세위인의 마지막모습이 뭇물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친필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이  
뭇물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조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한다

이것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지동치게 한  
7월의 그밤에 남기신  
우리 수령님의 뜻이었어라

20년세월이 흘렀어도  
수령님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  
속에  
뜨겁게 새겨져 빛나는 글밭  
그 글밭을 바라보면  
통일의 지로 온넛은 불타오르  
나니

7월의 숭고한 뜻  
온넛으로 새겨안으신 우리  
장군님  
분렬로 수난했던 이 땅에  
6.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  
셨나니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  
7월의 숭고한 뜻 받들어  
조국통일의 축포성 함있게 울려  
퍼질  
력사의 새날을 펼쳐가신다

몹소 최전방 판문점에 오시어  
수령님의 친필비를 바라보시며  
그 아홉글자 글밭 하나하나를  
심장에 새겨안으신 원수님

그 글밭은 그대로 원수님 가슴  
속에  
뜨겁게 고매치는 신념의 글밭  
통일을 기어이 이루실 의지의  
글밭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  
온 민족의 숙망인 조국통일  
이제 우리 원수님  
이 땅우에 기어이 안아오시리  
판문점의 친필에 어린 숭고한 뜻  
그 뜻으로 삼천리를 하나로 이으  
시리

밤이 새면 새날이 오듯이  
수령님 생애의 마지막 그 밤은  
반드시 이 땅우에  
통일의 새아침으로 밝아오려니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노도쳐가는 통일의 앞길에  
신념의 글밭로 눈부신  
《 김 일 성  
1994. 7. 7. 》  
통일에국의 길로 오늘도 겨레를  
부르며  
길이 빛나 빛나리라!  
7월의 숭고한 뜻은 영원불멸하  
리라!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서 서시여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  
관에 넘쳐 민족의 화해와 단  
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  
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위업  
실현을 위해 북과 남, 해외  
의 전체 조선민족이 한사람  
같이 떨쳐나선 이 거족적전  
군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  
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서계신다.

돌이켜보면 2012년 3월 미  
국과 그 추종세력이 강행해  
나선 대규모의 북침합동군  
사건습으로 하여 다치면 더  
질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첨  
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그  
중엄한 시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  
인 판문점시찰을 단행하시  
였다.

그이의 판문점시찰은  
어 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반  
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토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철  
석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피시던 력사적사변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  
운 숭결과 거룩한 발자취가 력  
력히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  
의 친필비앞에 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평생 조

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  
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  
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  
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  
일을 위하여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  
이 전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수령님의 친필비를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절절  
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  
들에게 우리 함께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반  
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토일된 통일의지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만이 단행할수  
있는 력사의 장거였다.

주제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  
을 성대히 경축하는 뜻깊은  
열병식장외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  
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  
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  
여 책임적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힘주  
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  
을 받들어 자주통일, 평화번  
영을 반드시 이룩할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파시  
한 력사적인 선언이었거늘.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  
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  
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  
그치자》를 비롯한 고전적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국통  
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렬  
은 곧 매국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  
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  
구이든 철세의 애국자이니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  
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통  
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파  
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가  
리쳐주시였다.

지금 우리 겨레 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판  
문점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  
이 되는 이해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해 나서는 파업  
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가  
장 절박한 과제로 새겨주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  
는 통일의지가 빛발치는 로  
작들을 받아안으며 해내의  
은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  
서 열어주신 6.15의 길을 따  
라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정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 민족은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를 모시어 대를  
이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고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이북의 미래는 창창하  
며 김정일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성국가  
도,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  
드시 밝아올것이다》고 걱정  
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우리 겨레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더에 받아안고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  
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얼마전 공화국 국방위원회  
가 남조선당국에 3개항의 특  
별제안을 보낸것은 온 겨레의  
념원과 민족모두의 민심을 반  
영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 민  
족기리의 정신을 틀어쥐고 북  
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단호한  
결심과 의지, 성의있는 노력  
의 뚜렷한 발현이다.  
또 한분의 화신의 친철명장,  
탁월한 령도자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우리 민  
족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은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  
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7. 4 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틀어쥐고나가자

재미동포언론인이 주장

에 이르렀고 북남관계는 최  
악의 사태로 전환되고말았다  
고 단죄하면서 7.4남북공동  
성명에 제시된 조국통일3대  
원칙을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런 뜻에서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특  
별제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재미동포언론인이 주장  
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  
다고 격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적국적인 후  
원을 받아 등장한 남조선의  
리명박 《정권》과 현 《정  
권》에 의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백지화되는 지경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3대원칙은 분렬을 끝장내  
고 평화통일로 가는 가장 옳  
바른 방도라고 지적하였다.  
같은 7.4공동성명이 세계만  
방에 공표된지 어언 42년의 세  
월이 흘렀다고 하면서 7.4공  
동성명의 기본핵은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민족자  
주의 립장을 견지하는것이며  
공동성명이 담고있는 자주,

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  
다고 격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적국적인 후  
원을 받아 등장한 남조선의  
리명박 《정권》과 현 《정  
권》에 의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백지화되는 지경

본사기자